

사카이시 인권추진과에서는 인권계발 DVD를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서적 대출은 하지 않습니다.

문의처는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TEL: 072-228-7420 FAX: 072-228-8070

DVD 도우와(同和/동화) 문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 (36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혼단이 발단이 되어 애인과 친구,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도우와(同和/동화) 문제가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터넷상의 정보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과 접해,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도우와(同和/동화) 문제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밝은 희망과 함께 전한다.

DVD 성적 소수자의 인권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 소수자(LGBT)에
대한 성희롱 (29분)

여성으로서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L: 레즈비언), 남성으로서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G: 게이), 동성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성을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B: 바이섹슈얼), 출생 시에 결정된 성별과는 다른 성별로 사는 사람·살기 를 바라는 사람(T: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의 존재가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텔레비전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가 어딘가에서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직장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성희
롱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사카이시에서는 여성 및 어린이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는 '사카이 세이프 시티·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시내 편의점의 잡지 코너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잡지가 간단하게 어린이 눈에 띄지 않도록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성인용 잡지 표지의 일부를 덮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 선구적인 활동을 계속해온 것이 영향을 주어 일본 내 90%를 넘는 편의점에서 성인용 잡지를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카이는 '사카이 세이프 시티·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해 앞으로도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실현을 한층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VD 평화

계승되는 히로시마·나가사키 1945 (70분)

사카이에 거주하는 피폭자 등의 체험담을 동영상과 음성 등으로 재현, 기록한 피폭체험증언집.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 주기를 원한다. 똑같은 과오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지금 다시 한번 "핵무기의 무서움"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카이 원폭 피해자회가 기획, 제작한 작품입니다.



BOOK

※서적 대출은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빈곤·격차의 현장에서(신일본 출판사) 히라마쓰 토모코 외 저

● 나답게, LGBTQ 1~4 (오프키 서점)
로버트 로디, 퀴라 로스 저

● 레이설 해러스먼트(인종 차별) Q&A
직장, 학교에서의 인종·민족적 괴롭힘을 방지한다(해방 출판사) 김명수 저

● 합리적 배려,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인가?
장애인 차별 해소법·고용촉진법의 사용법
(해방 출판사) DPI 일본회의 저

● 알기 쉬운 스포츠와 젠더
(미네르바 서적)
이이다 타카코 외 저



마음의 소리

vol.40

우리의 도시 사카이에서 인권 문화의 꽃을 피우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 GOALS TO TRANSFORM OU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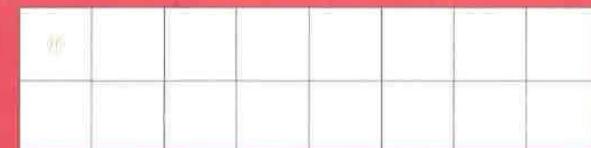
목차

- P 1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 진Ken교/인권협)란?
- P 2 인권협과 세계 인권의 흐름
- P 3 가맹단체 소개
- P 4 기고문
- P 5 부회 소개
- P 6 각 전문위원회의 활동 소개
- P 7·8 인권협 사업을 소개합니다
- P 9·10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 P 11 인권계발 DVD·서적 안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지속가능한 발전목표)란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제택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목표 및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지구상의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 인권협)에서는 여기서 소개하는 이벤트를 통해 '인권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도 펼쳐지게 될 다양한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편집·발행/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2019년 3월 발행)
사카이시 사카이구 미나미카와라마치 3-1
사카이시 인권추진과
TEL 072-228-7420 FAX 072-228-8070
URL <http://www.jinkenkyo.jp>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약칭: 진肯교/인권협)란?

인권협은 부리쿠(部落/부락) 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이 없는 밝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79년 7월에 발족한 시민조직입니다.

다양한 인권계발(啓發) 활동을 통해 모든 분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 풀뿌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사카이시 인권협의 심볼마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인권을 지키며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직도 · 임원

인권협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활동에 협력하는 각종 단체, 기업, 종교법인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축진위원 및 개인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부회장 구보 데루오
(사카이시 차지연합협의회)

부회장 아마구치 노리코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니시오 카쓰미
(사카이시 학무교사연합(PTA) 협의회)

부회장 시리모토 타다시
(사카이시 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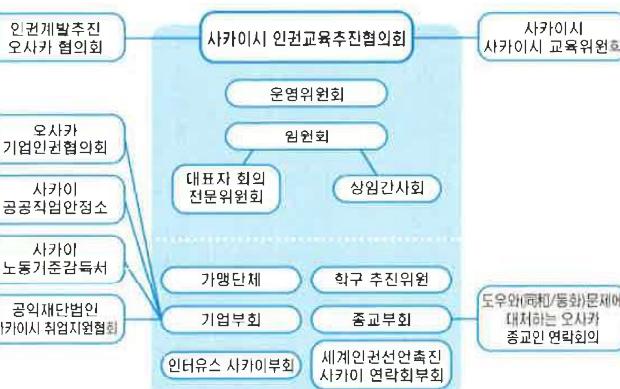
부회장 카사이 유타카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부회장 나키타 리에코
(나카구청(부락) 해방동방 오시카도 구현회 사카이지부)

부회장 요시무라 세이지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회계 히토리 세쓰코
(사카이시 경생보호여성회)

회계 오구라 마쓰코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가맹단체

인권협에는 30개 단체가 가맹하고 있습니다.

- 사카이시 교육회
- 사카이시 재일외국인 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 사카이시 청소년 지원 협의회
- 사카이시 학부모 교사 연합(PTA) 협의회
- 특집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 민간 교육보육시설 연맹
- 사카이시립 교원장회
- 사카이시구 행정상담위원회
- 일반사단법인 전수학교 각종학교 연합회
- 주식회사 UR 커뮤니티 서일본 지사
-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
- 사카이시 자치연합협의회
- 사카이시 사립 유치원연합회
- 사카이시 인권교육연구회
- 사카이시 보육회
- 사카이시 민생위원회 아동위원회 연합회
- 일반사단법인 사카이시 노인돌봄연합회
- 사카이시 보호사회 연락협의회
- 자유도우와(同和/동화)회 오시카부 본부 사카이지부
- 센보쿠 주거센터
- 사카이시 경생보호여성회
- 사카이시 사회교육위원회
- 특집비영리 활동법인 사카이장애인단체연합회
- 사카이시 농업협동조합
- 일반재단법인 사카이시 모자·과부 복지회
- 사카이 상공회의소
-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 사카이복지법인 사카이시 사회복지협의회
- 제4학구 8지구 공립학교장회
- 부리쿠(部落/부락) 해방동방 오시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인권협과 세계 인권의 흐름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활동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시민의 힘으로 전후 부흥과 민주화를 짚어지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카이시에도 1948년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PTA협의회와 인권옹호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사카이시에서도 활동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보호사나 민생위원회 아동위원회, 시카이시 교육회 및 사카이시 보육회 등 전쟁 전부터 계속되어 온 단체도 있습니다.

1950년대

전후 부흥으로부터 고도경제성장기를 향하여 사회 정체가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분으로부터 모자·과부 복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카이시 어린이회 육성협의회의 활동도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누구나 관심하고 상을 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추진한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의 시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195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53년에는 지역의 비행 방지 활동 주진을 목적으로 사카이시 정소년 단체원 제도가 발족되었습니다.

1960~70년대

고도경제성장으로부터 안정성장으로 향하는 도중 시민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1922년 전국 수령사가 결성되어 부리쿠(部落/부락) 해방 운동이 본격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만, 60년대에 들어 부리쿠 해방운동 속에서 부리쿠 해방동방 사카이지부의 재건, 전국 자유 도우와(同和/동화)회 결성(1966년), 그 뒤에도 인권교육연구회 등 부리쿠 차별 해소에 대한 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간행보호부인회(현재 여성회)나 노인돌봄협회도 이 시기에 조직되어 갑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시내의 차지회조직으로 구성되는 사카이시 차지연합협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운동에 힘쓰는 단체로 구성되는 사카이시 신체장애인(야) 단체연합협의회(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79년

7월 9일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인권협)를 설립하였습니다.

'지키자 인권, 웅서하지 말자 차별'을 표어로 혐의회를 발족, 아래로 '인권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 전체 연수회', '차별과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 '인권협 소식 발행' 등 현재에 이르는 활동을 시작한 외에 '여성의 차별과 차별의 역사'나 '국제적 인권사상과 헌법' 등 계발(猖獗) 소재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980~90년대

인권협으로서 많은 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부회나 종교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 개발 소재자 발행: 상기의 2권 외에 '도우와(同和/동화) 문제의 현대적 과제', '기업 내 도우와(同和/동화) 연수의 실천과 과제' 등
주 ○ 연수: '고아산 숙박 연수', '조통학교 학구연수회', 다른 도시와의 연길교류회, '인권 개발 리더 양성 강좌' 등
주 ○ 사회운동: '신관조사 거칠 운동', '관현상제 등 실증으로 문제 겸포위원회 신관조사로 이어지는 도서에 대한 대응 등', '과거 대장의 열람 금지 등에 관한 신정', '키요메시오(정체화 해주는 소금)'를 재고하는 활동, '블랙 삼보 절판'
주 ○ 이벤트: '인권을 지키는 시민의 주강 발표회 개최', "인권원" 사카이 즉제 파이어드 참기'

○ 1982년 2월 17일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기업부회 발족
'안 한다, 시키지 않는다' 취업 차별'을 술로 겉으로 걸고 설립대회에서는 도우와(同和/동화) 문제에 대한 읊바를 이해와 인식 아래 고용축전에 노력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 1983년 9월 14일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종교부회 발족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며, 동시에 존엄과 권리에 관하여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이념과 종교인이 바라 마지않는 '자유와 평등', '생명과 인권존중' 이념 아래 부회를 발족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축진 사카이 연락회 IYY(1999년 인터유스 사카이)가 설립되었습니다.

○ 1984년 4월 17일 세계인권선언 축진 사카이 연락회 설립
유엔에 의해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매년 사카이 대공연이 있었던 7월 10일 전후에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시민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1985년 4월 11일 인터유스 사카이(통칭 IYY)의 전신인 '국제 청년의 해 사카이 지역 실행위원회(통칭 IYY)' 결성
유엔이 정한 국제 청년의 해의 테마 '참기, 개발, 평화'에 '인권'을 추가한 4가지 테마를 내걸고 그 정신을 차세대로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주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년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까지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상의 인권침해나 헤이트 스피치, 각종 해리스먼트 문제, 아동이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 가정 폭력 등의 문제가 표면화, 이들에 대응하는 법안 정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협으로서 시민계발에 대응해 왔습니다.

2005년
MDG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 스타트

○ 1998년~ '하지 않는다, 시키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를 표어로 '신원조사 거칠 운동'을 추진

○ 2007년 전자판 부리쿠(部落/부락) 지명 충감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악용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시민계발 추진

○ 2009년 '일본 여성회의 2009 사카이' 개최를 맞이한 연계·협력, 리먼쇼크를 계기로 양극화 사회를 문제시하게 된다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사람들의 생활과 생활 위기,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돈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문제시하게 된다

○ 2016년 '장애인차별해소법',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부리쿠(部落/부락) 차별 해소법'에 관해 언급

2016년
SDGs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스타트

인권협에서는 매년 총회에서 기본방침 및 중점목표를 정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적인 인권 동향을 의식해 가는 움직임을 염두할 수 있습니다.

○ 1995년~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시카이시 후기 행동계획'의 보급·개발 및 '동 주진 풀방'의 구체화

○ 2012년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 제2단계에 관해 언급

○ 2013년 '남녀평등지수 135개국 중 10위'라는 점을 문제시

○ 2014년 'UN Women 세이프 시티 글로벌 프로그램'에 사카이시가 참획

○ 2018년 'SDGs',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실현을 이념으로 하여 인권협 활동을 추진

가맹단체 소개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연혁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때전 후인 1948년 7월 1일에 사카이 부인회로서 결성된 사카이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입니다.

그 후 전국 부인단체 연락협의회에 가맹하여 사카이시 여성단체연락협의회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후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1945년에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고 그 제24조에서 남녀평등이 정해져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여성의 지위 확장, 사회참여 추진이 막 시작되었던 가운데 당시 사카이의 여성들은 초토화된 시내의 와를 더미를 주워 모으고 지역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가족을 잃은 고령자 분들에게 밥을 지어서 주는 등 전후의 지역복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후 일본 사회의 GHQ에 의한 정책으로 전국에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연수회가 개최되고 지역에 부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전시 하에서 국방 부인회 등 큰 여성 조직이 3개나 존재하고 있었으나 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해 새롭게 부인회 조직이 결성되어 가는 시대에 사카이시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소비자, 생활자로서의 시점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창설 당시 여성들의 염원은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두 번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와 평화를 위한 여성 인권 확립과 남녀 평등사회의 실현을 주축으로 한 활동이 교육, 복지, 의료, 소비, 환경,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해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학습 의욕이 왕성해서 무조건 여성이 공부해야 할 필요성, 임파워먼트의 중요성과 동시에 활동 거점이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은 부라쿠(部落/부락)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피차별 당사자에 의한 대중 단체입니다. 부라쿠(部落/부락) 문제 해결을 비롯해 인권 침해 사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엄격한 차별 속에서 '인간 세상에 열정 있으라, 인간에게 빚이 있으라'라는 일본 최초의 인권선언을 제기한 전국 수평사(水平社)를 계승하는 전국적인 조직이며 전국에 2,200개 지부가 있습니다.

사카이 지역에도 전쟁 전의 헤노마쓰 수평사 활동을 이어 받아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가 종전 후 결성되었습니다.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은 부라쿠(部落/부락) 차별 사건에 관한 활동과 함께 인권계발이나 열악한 조건에 방지되어 있었던 피차별 부라쿠(部落/부락)의 생활실태의 개선=환경, 생활, 취업, 교육 등의 운동을 일관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또한, 다방면의 사람들과 연계한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 및 IYD(인터유스 사카이), 인권 포럼 사카이의 빛축 및 운영 등에도 노력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이트 스피치나 심각한 양극화 사회의 진행,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횡행하는 방대한 부라쿠(部落/부락) 차별 정보의 유모와 확산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활동도 급선무가

필요하다는 점, 사카이시에 부인회관을 건설하자는 건설 운동이 27년 동안이나 이루어져, 3개에 100엔짜리 칫솔 판매나 리사이클 바자 등을 개최하여 최종적으로는 한 계좌당 천 엔씩 모금하여 7,700만 엔을 모아 사카이시에 기부해 부인회관 건설 조례를 설치한 다음에 드디어 1980년 8월에 사카이시립 부인회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래로 사카이시의 남녀평등정책이나 여성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협력하면서 전국의 부인회관을 시찰한 결과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많은 시민이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엇인가 사회공헌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사카이시 여성단체는 사카이시 인권교육추진협의회에도 처음부터 참획하여 남녀 혼합 출석부, 미스 콘테스트 반대운동, 나아가 꼬마 블랙 삼보 그림 통화책 연구와 교과서 속의 젠더 과제, 여자(女) 변 한자 및 관혼상제, 종교, 자별 계명 등 같은 풍습이나 관습, 또는 전통 속의 젠더에 관한 연구를 하여 터널이나 스모(일본 씨름)의 도효(씨름판), 오미네야마산 등으로의 여인 출입 금지와 캐가레(불결)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하여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여성, 남성을 막론하고 성적 소수자도 포함해서 누구나 살기 편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SDGs 이념을 토대로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철폐를 위해 사카이 세이프 시티·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일본에서도 여성 시책을 주도하는 여성단체로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카이시 인권협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당연히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016년 12월에 '부라쿠(部落/부락) 차별 해소를 위한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사카이시에서도 2007년에 '사카이시 명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법이나 조례의 구체화와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포괄적인 법 제정이 금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 도시 만들기'를 테마로 지역 전체가 각종 과제에 대응해 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암켓트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고민, 곤란한 점 등을 집약해서 과제해결을 위한 활동이나 고령자 보호 활동, 푸드뱅크 OSAKA와 연계한 어린이 식당 운영 및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식량 등을 지원하는 '나눔의 식량 마켓' 실시 등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다이센니시 초등학교 학구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구나 주변 학구와 함께 연대하여 실시하고 학구 외의 사람들과 교류를 끊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부라쿠(部落/부락) 해방동맹 사카이지부는 '단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활동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기고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인권에 뿌리를 둔 활동을 지역에서부터



유엔홍보센터 소장
네모토 카오루

박하는 2050년, 지금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지구가 3개 필요하다고 한다. 지구의 한계를 옹시하고 산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으로부터 생겨난 SDGs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인권에 뿌리를 둔 SDGs의 대원칙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여성, 젊은 사람, 시니어 층을 비롯한 뒤처지기 쉬운 사람들들을 처음부터 구제하려는 자세로서 특히 중요하다.

중전 직후 1948년에 채택된 지 작년으로 70년의 전기를 맞이한 '세계인권선언'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평화와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다. 당초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후에 국제인권법이 발전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다. 인권선언을 성립시킨 분들의 선견지명과 그 정신을 계승하는 조약 체결에 임한 분들의 인내력과 행동력의 승리일 것이다. 그리고 SDGs가 내걸고 있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이 바탕에 있다. 무릇 '발전'에 관한 목표로 이렇게까지 명확히 단정 짓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참신한 아프로치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SDGs에 훈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육아층과 시니어층의 커뮤니티 참가, 매력 넘치는 도시 조성 등 가까운 과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SDGs에 당사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치와 자유'의 기쁨이 넘치는 사카이시의 여러분이 부디 그 선두 주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부회 소개

인권협은 기업부회, 종교부회, 인터유스 사카이부회,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 연락회부회의 4개 부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 연락회부회와 종교부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 연락회부회

부회장: 카나마루 나오히로

2018년도부터 사카이시 인권협의 부회로서 참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 연락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인권선언 35주년을 기념으로 1984년에 발족하여 인권에 관한 강연회나 연수회를 개최, 계발 서적을 구입하거나 배포, 세계인권선언 오사카 연락회에 참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 연락회부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매년 7월에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7월 8일(일)에 히가시 문화회관 메인홀에서 개최했으며 사카이 시립 노다 중학교 취주악부가 연대 콘서트와 애니메이션 영화 '이 세상의 한구석에'를 상영했습니다.

우리 세계인권선언촉진 사카이 연락회에서는 두 번 다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불어 사카이 대공습이나 전쟁의 비참함이 퇴색되지 않도록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매년 7월 10일 전후에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교부회

부회장: 요시무라 세이지 (이즈모오야시로 신사 오사카 분사)

회원 수 394개 법인(2019년 2월 현재)

종교부회는 1983년 9월에 세계인권선언의 이념과 종교인이 바라 마지않는 '자유와 평등', '생명과 인권존중' 정신 아래 부라쿠(部落 / 부락) 차별을 비롯한 온갖 차별 철폐를 목표로 사카이시에 거주하는 종교인들이 종교와 종파를 넘어 인권협에 호응하고 참획하여 부회를 설립했습니다.

'신원조사 거절 운동' 추진과 함께 과거첩 열람을 비롯하여 신자 등의 기록 장부류의 열람 금지 등의 힘의, 부라쿠(部落 / 부락) 차별의 뿌리에 있는 '케가레(불결) 의식'으로 이어지는 장례 때의 회장자(會葬者) 등에 대한 '키요메시오(청결히 해 주는 소금)' 문제 등 차별의 온상이 되는 사회적 통념, 의식, 관행 등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과거 활동

'1985년 과거첩(過去帖) 열람 금지 등에 관한 합의'에서 발췌

종교부회로서 '신원조사 거절' 운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과거첩 열람을 통해, 또는 종교조직을 통해 집안 등을 알리는 형태로 신원조사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해 온 사실도 있었기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종교인이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과거첩의 열람, 종교조직을 이용한 집안 등에 관한 문의 등 엄중히 행하지 않을 것을 힘의하는 바입니다.



'1991년 신사 경내에 세워진 석비, 여성과 부라쿠(部落 / 부락) 문제에 관하여'에서 발췌

신사 입구에 세워진 不許禮不淨之壇入境內 (오예와 부정된 무리를 경내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리고 새겨진 비석을 앞에 두고 '케가레(불결)'나 '키요메(부정)'가 부라쿠(部落 / 부락)나 여성문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증. 종교인이 일상생활을 둘러싼 습관이나 관행, 편견, 행동양식 등 속에 숨어 있는 차별성을 의식할 필요성, 올바른 사고방식을 보급해 정착시키기 위해서 책임져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서로 인식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의 활동 소개

도우와(同和 / 동화) 문제 전문위원회

대표: 나카타 리에코

(부리쿠(部落 / 부락)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사카이지부)

도우와(同和/동화) 문제 전문위원회는 도우와(同和/동화) 문제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의 과제 등에 관하여 먼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옮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과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열린 인권협 전체 연수회 제2부 분과회에서 실제로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투고된 부라쿠(部落/부락) 차별에 관한 질문의 대답 사례를 바탕으로 월드 카페 방식으로 자기 생각과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의견 교환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전자게시판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리하나 잘못된 지식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다', '인터넷은 짧은 층도 많이 이용하므로 앞으로는 한층 더 짧은 층에 대한 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월드 카페란?

카페처럼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4명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장을 만듭니다.

그룹은 국가로 가정하여 멤버 면성을 바꿔가면서 다른 나라와 섞여 의견을 교환하며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수법을 말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전문위원회

대표: 야마구치 노리코 (사카이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전문위원회에서는 밀접한 문제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점을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인권협 전체 연수회 제2부 분과회에서는 2022년부터 성인 연령이 18세로 내려가는 점에 대해 '18세~성인? 어린이?~'를 테마로 월드 카페 방식으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로부터 '18세부터 성인이 됨으로써 책임감이 늘어난다', "'책임감이 없다'가 아니라 '책임감이 있다'로 바뀌는 사회 조성이 필요', 짧은 이로부터는 '보다 우리들의 의견도 들어 주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전문위원회

대표: 오구라 미쓰코 (사카이 인권옹호위원회의회 사카이시 지구위원회)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전문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인권협 전체 연수회 제2부 분과회에서는 사카이시 지역포괄 캐어추진과의 하나야 카오루 씨와 아사카야마 병원 인지증 간호인정 간호사인 미요시 토요코 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인지증을 이해하자'라는 테마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하나야 씨로부터는 '자조(自助)', '호조(互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4가지 관점에서 지역의 인지증에 관련된 모두가 연대하여 추진해 가야 할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또 미요시 씨로부터는 인지증이더라도 인권이 존중되며 적절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욱 살기 편해진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꼭 참가해 주십시오.

인권협 사업을 소개합니다

전체 연수회

2018년 8월 20일 장소: 선스케어 사카이

2018년도 인권협 전체 연수회 제1부는 이케가미 키요코 씨(나가사키 대학 대학원 교수, 공의재단법인 플랜 인터내셔널 재팬 이사장, 사카이 세이프 시티·프로그램 감수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란 ~17개 목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SDGs를 테마로 강연을 받았습니다.

또 제2부는 각 전문위원회가 주제가 되어 각자 도우와(同和/동화) 문제 분과회,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분과회, 장애인과 고령자의 인권 분과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의 '각 전문위원회 활동 소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시민 모임

2018년 12월 9일 장소: 사카이시 종합복지회관 흥

제40회 '인권을 지키는 시민 모임' 제1부는 '나의 인권 메시지'의 특선 수상자 표창 및 4명의 메시지 발표(작품은 9페이지의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 작품 소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와 인터유스 사카이부회 해외파견단의 대만 스터디 투어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인권문제를 파악하여 쓰인 메시지는 거기에 써진 인권문제에 관해 새삼스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로 각각의 인권문제를 파악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유스 사카이의 보고에서도 평화를 위해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등이 전달하는 내용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함께 활동하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줬습니다.



제2부에서는 오오사키 아사코 씨(사카이 지유노 이즈미 대학 부학장/간세이가쿠인 대학 객원교수/국제협력센터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누구나가 살기 편한 사회란 ~세계에서 바라본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자신이 유엔 직원으로서 추진해 온 '젠더의 평등' '여성, 결손의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성에 관해 왜 소중하냐는 점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SDGs에 관해서는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일찍이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취급받았던 문제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대로는 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렇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어떻게 없애 가야 하는가 하는 SDGs가 지향하는 것과 그 이념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보편성' '사회변혁' 그리고 '모두가 한다(열티 이해관계자들)'라는 생각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분이 관여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요구를 해아려, 모두가 살기 편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젊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협의 활동이기도 한 '인권 풀뿌리 운동'과 통하는 점이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활동을 소중히 해 가겠습니다.

학구 추진위원회 연수

인권협에서는 매년 10월~11월에 사카이 시내 7개 구역에서 인권에 관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구 추진위원회 여러분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각 구역에서 아래와 같이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역	일정	테마	강사
나카구	10월 16일(화)	여성의 인권 '가정 폭력 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을 위하여'	유키타 죠리 씨 (여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키타구	10월 22일(월)	어린이의 인권 '어린이의 학대방지법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토 카요코 씨 (오사카부립대학 지역보건학역 교육복지학류 교수)
미하라구	10월 29일(월)		
사카이구	10월 23일(화)	도우와(同和/동화)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도시조성'	나카지마 신시로 씨 (NPO 범인 생활 꾸미기 네트워크 키타시바)
미나미구	11월 29일(목)		이케가와 케이스케 씨 (NPO 범인 생활 꾸미기 네트워크 사무국장)
히가시구	10월 30일(화)	인터넷과 인권 (인터넷, SNS에서의 인권문제)	이시카와 치아키 씨 (일반사단법인 소셜 미디어 연구회 수석연구원)
니시구	11월 19일(월)		

다음 연도에도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인터넷과 인권'

히가시구와 니시구에서는 이시카와 치아키 씨(일반사단법인 소셜 미디어 연구회 수석연구원)를 강사로 초빙하여 '인터넷, SNS에서의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연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이 빌매된 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점점 보급되면서 과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쯤부터 사용자의 저연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점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SNS에서 분쟁에 말려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란 사람끼리 교류하는 웹사이트나 앱을 가리킵니다. 또한, 채팅으로 불리는 인터넷상에서의 회화에서도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채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사소한 원인이 분쟁으로 발전하여 친구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LINE(라인) 등의 SNS는 문자로 하는 회화이기에 말에 신경을 쓰도록 아이들에게 전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인터넷에 관한 분쟁 수는 대부분 확실히 줄어들닙니다.

또, 스마트 위치 등에 의한 부정행위 등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 의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도 있어서 건강에 대한 영향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토대를 만드는 일', '어떻게 이용하면 염려스러운가?'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①유해 사이트를 보여 주지 않기 위한 '필터링' ②사용법을 스스로 정하는 '규칙 만들기' ③평소에 말을 짚으로써 '어른이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 등을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환경이나 소셜 네트워크가 가까이에 있는 세대의 사람을 일컬습니다. 태아났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특히 아이들은 디지털에 대해 매우 성통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의 유동과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소중히 해야 하는 것, 올바른 디지털과의 관계성을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요?



*학구 추진위원회에 관하여

학구 자치연합회 임원, 단위 자치회장, 학구 내 각종 단체위원, 학구 내에서 인권 개발에 열의가 있는 문 중에서 사카이시 자치연합회의 학구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학구에서 '인권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권 메시지' 특선작품 소개

일본 씨름의 여성 금지에 관하여

저는 스모(일본 씨름)를 배우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상관없이 모두 신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모를 정말 좋아합니다.

5월에 스모의 '준교' ('혼바쇼')라고 불리는 정기대회 사이에 열리는 지방대회가 사카이시에서 이십 수년 만에 행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경험이라서 굉장히 기다리겠습니다. 다니고 있는 스모 클럽의 어른들과 중학생이 자원봉사로 전날부터 설치 등을 하니까 저도 도와주려 갔습니다. 씨름판을 처음부터 만듭니다. 저는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좌석 준비 등을 도왔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아서 신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준교' 당일에는 어린이 스모에 나갈 예정이어서 아침 일찍부터 도와주러 갔습니다.

어린이 스모는 어른 스모 선수와 대전을 할 수 있어서 두근거리고 가슴 설렜습니다. 하지만 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담당자로부터 '출장할 수 없습니다.', '역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락가

도우와(同和/동화) 문제에 관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제까지 수도 없이 인권 학습에서 배워 왔다. 나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인권문제에 관해 배우고 생각해 왔을 이 시대에 지금도 여러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다.

내가 도우와(同和/동화) 문제를 처음 피부로 느낀 것은 고등학교 입시 상담을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신 '저기는 도우와(同和/동화) 지역이니까.'라는 말씀이었다. 바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도우와(同和/동화) 문제는 에도 시대(17~19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차별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좀 두려워졌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사이에 도우와(同和/동화) 문제가 지금 주목을 모으는 LGBT 등의 인권 문제와는 달리 약간 퇴색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최근까지 '자기 혼자 평화를 바란다고 해서 금세 세상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차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현재까지도 다양한 인권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우와(同和/동화) 문제에 관해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을 알았으면 싶었다. 그리고 후세에도 전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흥미를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

락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같이 씨름판에 입장했습니다.

씨름판 아래에서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아이만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라는 말을 들었고, 저를 대전이 끝난 아이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씨름판에 올라가지 못하고 모두를 밑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슬픈 마음, 분하고 부럽고 아쉽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물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싫어서 웃는 얼굴을 저었습니다. '여자아이로서 씨름판에 못 올리기는 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출전에 대해 오락가락 한 건 누군가가 여자아이도 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었기 때문이라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오즈모 역사나 전통의 소중함도 알고 있기에 씨름판에 못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젠가는 출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에도 시대(17~19세기)보다 이전부터 있었던 그 차별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좀 두려워졌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사이에 도우와(同和/동화) 문제가 지금 주목을 모으는 LGBT 등의 인권 문제와는 달리 약간 퇴색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최근까지 '자기 혼자 평화를 바란다고 해서 금세 세상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차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현재까지도 다양한 인권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우와(同和/동화) 문제에 관해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을 알았으면 싶었다. 그리고 후세에도 전하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흥미를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지진과 청각장애

청각에 장애가 있는 여성이 '가고 들리지 않았다 3.11'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청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동일본 대지진의 상황을 찍은 영화이다.

나에게는 청각장애가 있다.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진이 일어난 걸 듣고 알 수 없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일로 알려 준다. 그렇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 해일이 올 줄은 몰랐다. 또 피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피난처 장소는 학교 체육관이 많은데 장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 줘도 알 수 없다. 전봇대에 붙어 있는 녹색 간판을 본 적이 있다. '광역 피난처'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체육관의 간판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지도가 간판에 쓰여 있으면 간판을 보면 들리지 않아도 피난길 수 있다.

인정받는다는 것

2018년 6월 27일. 제가 태어나서 자란 오사카에서도 겨우 '동성 파트너십 선서 증명제도' 도입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월경에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너무 빠르고 갑작스러워서 믿을 수 없는 기분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한 건 제가 아이였을 때였습니다. 제가 여자이자 연애 대상이 동성이라고 말하면 남자가 짙은 거라고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는 이성도, 곤경에 처했을 때는 가능한 한 힘이 되어 주고 싶은 이성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동성이라는 점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좀처럼 이해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도…….

처음 동성의 애인이 생겼을 때 정말 기쁜 마음과 숨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저도 그녀도 괴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사이가 좋은 친구, 둘이서 있을 때는 연인 사이. 사춘기로 주워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해서 데이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늘어가고 이대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함께 죽고 싶은 마음마

지원학교 전공과 1학년

말해 줘도 안 들리기 때문에 모른다. 필답해 주거나 읽으면 알 수 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소리가 나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깨를 두드려 주면 얼굴을 볼 수 있다. 필답해 주면 알 수 있다.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고령자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달리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서 데리고 간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스관이 파손되거나 물이 안 나오거나 한다. 목욕물이나 요리에 필요한 물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럴 때 금수차가 왔다는 걸 일면 무거운 물을 옮길 수 없는 고령자를 도와줄 수 있다.

지진이 일어나면 나도 고령자 등을 도와주고 싶다. 안 들리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나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성인

저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와는 헤어졌지만 저 자신 동성애자라는 것에 중압감을 느껴 몇 번이나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과 알게 되고 성적マイ너리티(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졌습니다. 아직 당사자에게 비난이 거세다고는 하나 제 학창시절에 비하면 대단한 변화입니다.

'동성혼을 안 하더라도 둘이 있으면 좋잖아'라는 의견도 자주 듣지만 그것은 당연히 결혼제도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 장래를 느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사카에서 동성 파트너십 선서 증명제도가 도입된 밤—무엇보다 제가 태어나 자란 오사카가 자기 자신을 어디선가 부정해 오면서 살아온 저를 인정해 준 기분이 들어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정말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살아 있어서 더 행복이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도 세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짐으로써 많은 동성애자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